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29강, 고린도전서 12-14장, 영적 베푸는 것에 대한 바울의 응답, 고린도전서 12장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29번째 강의, 고린도전서 12-14장, 영적 은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글쎄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강의를 계속하면서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노트패드 14의 183페이지에 있으며, 실제로
본문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동시에
일부는 축약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의 시간은 꽤 확장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할 것이고, 그런
다음 여러분은 스스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학습은 활동을
의미하며, 해설을 읽거나 생각하는 것과 같은 학습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저 제 말을 듣고 곧 제가 한 말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말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스스로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3페이지, 우리는
지금 12장, 주권자 주님의 영적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능은 신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장의 시작입니다.

사실, 그것은 다소 놀라운 시작이지만, 그것은 어떤 맥락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맥락은 14장 섹션의 끝에서 돌아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 나는 여러분이 무지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든 이교도였을 때, 영향을 받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릇된 길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한다. 저주를 받는다는 단어는 아나테마이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아나테마 예수라고 말하고 아무도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말이 되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신교 문화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화는 신에 따라 삶을 영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신을 바라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심지어 다원적 방식으로 신의 은총을 구합니다. 이교도들이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것에 대해 좀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그들의 삶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문제를 겪고 있는 유일한 이유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도 정말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로마 고린도의 이교도 우상 숭배 상황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 만큼은 충분한 정보가 있어요.

이제, 절 표시와 주어 신호는 1절에서 우려스럽습니다 . 영적인 자들인 pneumaticon 이 어떤 음조 를 가리키는지는 자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이 주장하듯이 영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들이 주장하듯이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 용어가 은사를 영이 주신 은사, 즉 영의 것들의 관점에서 배치하기 위해 은사에 사용된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노니, 너희가 이교도였을 때, 그러므로, 어쨌든, 미안하지만, 나는 그곳을 보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할 때.

183페이지 하단을 주목하세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자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은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12.1절의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와 14.38절의 대응 구절의 힘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두라.

흥미로운 구절이지만, 12-14장의 경계 표시를 생각해보면 바울이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하고 끝냈다는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이 종결 텍스트라는 사실은 무지의 이러한 병치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의 이전 삶을 되뇌는 것은, 아시다시피요.

oude 에 직면했습니다 . 그것은, 아시다시피, 하지만 우리는 부정문에서 직면했습니다. 이걸 모르니? 이걸 모르니? 이걸 모르니? 이번에는 부정문으로 쓰는 대신, 폴은 알다시피라고 말합니다. 그는 대화의 측면에서 그들에게 약간의 신용을 주고, 그들은 그것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기시키는 수사적 형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중은 즉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글썄요,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저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것들이 읽히고 제시되는 구전 문화의 수사학의 일부입니다.

바울이 우상에 대해 언급한 것은 20세기 독자에게는 즉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독자들에게 영감받은 발언이 이교도의 현상이기도 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진짜 시험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적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낳을 복종.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이전의 신들,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사절 중 한 명으로서 이 모든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FF 브루스는 고전 문학에서 아폴로는 특히 황홀한 발언의 근원으로 유명했다고 상기시킵니다

델파이의 여사제, 트로이의 카산드라의 입술에서처럼. 또는 쿠메의 시빌이 신의 통제 하에 예언할 때의 광란은 버질이 생생하게 묘사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은 바울이 글을 쓰기 전의 문화에 존재했습니다.

더 겸손한 수준에서, 사도행전 16장과 16장의 점술을 하는 노예 소녀는 그녀가 말하게 만든 어떤 종류의 파이썬적 영에 지배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조종한 남자는 아마도 사람들에게 그 연설을 통역하여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방언이 문화권에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권에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우산 아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합쳐지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인도되었고, Barrett은 관찰합니다. 그것은 이교 종교에서 경험한 황홀경의 순간을 암시합니다.

인간이 초자연적인 것에 사로잡혔거나 사로잡혔다고 믿어질 때. 예를 들어, 루시안의 *Dialogi Moratorium*에서 파리스는 사랑의 힘에 대해 말하고 일종의 신을 말합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이라는 단어 대신 악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의 악마와 그것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지만, 그저 그들이 사용한 어휘가 그랬을 뿐입니다. 가끔씩 보게 될 겁니다. 전에는 일종의 신이 우리를 그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갔고, 그를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황홀하고 통제 불가능적인 종류의 발언입니다. 그것은 로마 궁정 시대의 고대 종교에서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교도 사원에서 이것을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들과의 소통이 종종 그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황홀경에 빠져 어떤 종류의 황홀한 말을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황홀경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진정한 영성에 대한 권위 있는 지시는 이제 3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의 고고학적 작업에서 발견된 저주판은 약 27개입니다.

이 저주판에는 로마 코린트인들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려고 했던 다양한 종류의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사업가나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마도 법정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고린도에서 그들이 적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려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는 온갖 증거가 있습니다. 이 다신교 문화는 다양한 것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주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스포츠, 사랑, 정치, 경쟁, 상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윈터는 로마 코린트에서 저주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일부 기독교 관습에도 반영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들은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대중은 신을 세상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글쎄요, 일부 기독교인과 크게 다르지 않죠? 신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신에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저주라고 부르는 부정적인 맥락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아마도 과거에 이것을 실행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상황으로 그것을 가져왔을까요? 그들이 해야 했던 전환을 감안하면 그렇게 터무니없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Anathema Jesus , 예수. 이것을 재구성하기 위한 수많은 제안이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해 Anathema Jesus 에 대한 최종적인 설득력 있는 답은 없습니다 .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바울이 주권 고백을 균형 잡기 위해 넣은 가상의 저주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아무도 예수가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옛 삶과 새 삶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일부 비기독교적 황홀경이 황홀경 상태에서 예수를 저주했을 수도 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갈등하는 문화였습니다.

최소한 기독교 교회에 손을 댄 사람들은 그것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다른 것에 대한 저주판을 가져다가 붙였다면, 즉 그들은 교회와의 갈등과 관련하여 우위를 차지하려고 같은 절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고린도 신자들 스스로가 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께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시편에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적을 돌보라고 부르짖는 저주 시편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리스도인이 적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신에게 부르짖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적절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주판의 동일한 문화적 측면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와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는 슬로건은 예수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던 슬로건이어서 언급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지만, 당신은 이쪽에 있습니다. 예수는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저주하거나 예수가 당신을 저주한다면, 당신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얼마 후인 서기 110년에, 문제는, 그것이 5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일어났을 수 있었을까요? 플리니 더 영거가 그리스도를 모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글쎄요, 고린도에서 기독교와 유대인 또는 기독교와 이교도 사이의 갈등에서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말할 증거는 없습니다. 게다가, 원터의

재건은 이 책의 주제 , 즉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원터가 쓴 책에서, 이교도주의의 침투는 기독교인들이 적대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방식에서 나타났다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기독교 집회에서는 밖에서든 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 들이 실제로 예수를 저주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회중 내에서도 일부 내분을 다루기 위해 종교적으로 저주를 사용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닙니다 .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지만, 이것이 이것에 대한 분수령이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화가 아니다. 그것은 그저 공식이 되기 위한 공식이 아니다.

그것은 공식 형태의 고백적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0:9, 꽤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읽는 게 낫겠다. 왜 내 기억이 갑자기 흐릿해지는지 모르겠다. 연습이 부족한 탓인가 보다.

로마서 10:9, 여기서는 정말 빨리, 얇은 페이지입니다. 당신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선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입니다.

예수는 주님이라는 또 다른 번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백적 공식입니다 . 예수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저주하는 것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활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의 범위 밖에 있고 확실히 해야 할 것의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12:1-3의 결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12.1-3이 은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12-14장은 은사에 대한 이상한 서론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종종 서둘러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12:1-3은 맥락에 맞게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영적 은사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체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님이 아니라면, 당신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공동체의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따르면 사랑은 영적 형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개요에서 말했듯이 그는 주권자이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권자이신 주님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사랑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장과 14장. 이 은사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사를 갖는 것, 하나님의 주권.

은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13절과 14절은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복종,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마지막 진술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동안 14. 37절과 38절을 읽어야 합니다.

12:1-3에서 읽은 것과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앗. 로마서에 있었어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14:37, 38.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라 생각하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바울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인정하라. 그러나 누구든지 이것을 무시하면, 그들 자신도 무시당할 것이다.

옛 번역은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두라는 것입니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요점은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을 진리에서 오류의 범주로 소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류의 범주에서 당신의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씀, 진리는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계속 생각해보세요.

4-31절에서 주권자 주님은 영적 은사의 영역에서 통일과 다양성을 정하셨습니다. 12:1-3의 서론 후에 Talbert는 카이아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인 12:4-13에서는 영적 은사에 대해 다룹니다. 이에 대한 답은 14장에서 영적 은사 문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중간에는 은사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적절한 동기가 있습니다.

즉, 사랑은 공동체의 관리자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Talbert는 또한 12.4-30에 대한 ABA 패턴을 제안하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나열하지 않을 또 다른 카이아즘입니다.

이 개요는 제안을 따르지 않습니다. Garland는 실제로 12-14장 전체에 대해 완전히 다른 카이아스틱 계획을 제시합니다. 12:1-3과 14장의 끝은 아마도 그것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리드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단의 관점에서 그것을 훑어볼 것입니다. 1b, 선물 분배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사실을 소개한 후에, 그는 부정적인 것으로 비판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제시하고 부정적인 것은 일종의 흐름을 만들어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표현에는 다양성이 있지만, 이러한 표현의 기원에 대한 용어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 12장 4-6절.

학생 여러분, 12-14의 본질은 12-14가 서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텍스트를 주의 깊게 읽으면 의미가 더 빨리

나타납니다. 핵심 단어가 몇 개 있고, 핵심 아이디어가 몇 개 있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이 몇 개 있습니다.

하지만 읽는 것이 중요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4-6절.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같은 영이 나누어 주십니다.

봉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주님은 같습니다. 그 주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같습니다. 일하는 데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게서 일하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동일, 동일, 동일. 바울은 신격과 유추하여 통일성 내의 다양성 문제를 다룹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는 창조 패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통일, 다양성. 신격의 본성은 통일을 요구합니다. 다양한 사역과 표현이 신격의 인격을 특징짓는 반면, 그것은 통일에 기반을 둔 다양성입니다.

여기서 반복의 패턴을 주목하세요. 아마 아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어를 알려드렸으니, *autos*라는 속성형을 얼마나 극명하게 가지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autos*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종류의 품종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것입니다. *pneuma*, *Spirit*. 차이는 있지만, 같은 주님.

다르지만, 같은 신. 그러니까,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여기서 선물의 편성과 신체의 일부인 통일성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묘사됩니다.

이 같은 강조는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계속됩니다. 알아차리시겠죠. 이제,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성령의 나타남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주제를 주목하세요. 단결, 다양성, 공동선. 모두 함께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 형식으로 예시적으로 설명합니다. 한 사람에게서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같은 성령을 통해 지식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같은 영으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서는 그 한 영으로 치유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서는 기적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서는 예언을,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들을 구별하는 작은 s를, 다른 사람에게서는 여러 종류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는 방언을 통역하는 것을.

이 모든 것은 한 분의 동일한 영의 일, 곧 일치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가 정하신 대로 다양합니다. 이제, 이것은 특별한 목록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흥미로운 목록입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통일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과 함께 사는 능력입니다. 185페이지에서 주목하세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단결은 획일성이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리더십에서 많은 경우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따르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순응하게 하면 통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의지가 없다면 통일은 없을 것입니다.

강제 노동만 있을 뿐입니다. 단결은 순응이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감사입니다. 186, 페이지 맨 위.

은사의 다양성은 설명되지만, 그 목적, 즉 공동선과 그 기원인 성령 안에서 통일성이 발견됩니다. 12:7과 11의 분배는 이 섹션에 대한 포함을 제공합니다. 12:7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성령이 분배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2:11은 각각에 대해 섹션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경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목표는 공동체와 신체의 이익, 공동선을 위한 것입니다.

영은 몸을 관리하여 균형을 주고, 필요한 다양성을 주고, 다양한 개인의 은사를 통해 모든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아무도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합니다.

분배에서 범위까지, 은사의 범위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 몸에 관여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티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왜? 은사는 결국 우리가 사람으로서 누구인지에 대한 최종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유로 사람들은 평생의 발전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잘 발전했고, 어떤 사람들은 잘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은사 의 수준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 신은 그것을 자동으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권자 신이 분배해야 하는 단순한 기능이 아닌 특정 초자연적 은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두드러지고, 두드러지는데, 특히 제가 다시 생각해 볼 이 목록에서 두드러집니다. 기적적이지 않은 영적 은사를 영적 형성의 산물로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말해보세요.

기적적이지 않은 은사를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해, 그러한 치유를 이루기 위해 신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영적 형성의 산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적 삶과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선을 위해 나타나도록 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목표라면, 교회의 선을 위해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모두가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패턴과 성공을 관찰하면서 당신에게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와서, 알다시피, 당신은 정말 이것 잘한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정말 저나 특정 분야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걸 듣기 시작하세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아마도 당신의 재능의 패턴으로 보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방금 읽은 목록, 12:8~10.

이 목록은 하나의 단위입니다. Fee는 통역사가 이 특정 목록의 내용과 구성에 특정 해석을 부여함으로써 추구하는 다양한 의제에 대해 약간의 경멸을 표합니다. 그의 비판의 대부분은 잘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그가 목록의 겉보기에 균형과 구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학 장르에서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었을까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방언이 목록에서 마지막이라는 문제에 대해, 그것은 일종의 정보 노트입니다. 저는 당신을 어떤 참고 문헌으로 안내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 주어졌습니까? 거기에 그리스어가 있습니까? 대문자로 된 how라는 단어.

영은 어떻게 주시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평생 동안 누구가 되었는지, 지금은 교회의 보호 아래서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저는 그것이 표준 요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기적적인 측면과 같은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정상적인 기능에서 이러한 목록의 대부분은 교회를 운영하고 그들의 세계에서 효과적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기능, 즉 목록의 개별 항목에 의해 지배됩니다.

목록이고, 당신은 이전에 구조를 보았습니다. 187페이지 맨 위를 보세요. 당신은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볼 때, 당신은 오, 여기 또 카이아즘이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카이아즘이 각 조각이 위의 내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건 같은 내용이어야 해요. 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균형이 있어요 .

그리고 거기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조를 보는 방법 중 하나는 네 개의 더블릿 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이상한 진술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기적의 힘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것의 핵심이 됩니다. 이건, 제 생각엔, 정교하게 만들어진 목록입니다. 균형 잡힌 목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중간에 있는 기적의 힘은 목록의 다른 모든 항목에 대한 주요 정의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목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까요? 저는 대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중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글썬요, 이 목록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재능의 결과가 아닙니다. 아스피린을 주는 데 재능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믿음이 목록에 들어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목록에 있습니다. 왜 그것이 치유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글썬요, 목록을 생각해 봅시다.

가능한 정의. 목록의 용어에 대한 과제는 목록에 맥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당신은 그 목록 밖으로 나가 다른 용법을 찾거나 당신이 가진 맥락 내에서 논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항상 원하는 만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서에는 치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는 영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전입니다. 선물 목록의 항목을 자신 있게 정의하는 사람이나 출처는 아마도 타당성에서 스스로를 실격시킬 것입니다. 이 목록에 대한 해설을 읽고, 그들이 이 단어들에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하면, 당신은 약간의 다양성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목록 자체 외에 이 모든 것을 확실히 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광범위한 독서와 좋은 출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확실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안한 이 목록의 가능한 구조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균형 잡혀 있고, 기적의 힘이

핵심이라면, 목록의 모든 항목은 기적의 힘의 일부입니다. 기적의 힘은 전체 목록에 정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록이 초자연적 표현에 대한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장하고 배우고 행하고, 그런 다음 교회에 와서 행함으로써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공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목록에 있는 모든 항목은 자연적 재능의 작용이 아니라 초자연적 은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기적의 힘의 힌지와 목록에 있는 항목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 대한 더 나은 해설을 읽어보면, 구조 면에서 제가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는 사람을 찾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정의하는 방식에서 그 중 일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암시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그것을 차트에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트에 넣으면, 그것은 마치 벽돌 한 덩어리처럼 당신을 강타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더블릿.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둘 다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들을 정의하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헌에는 여러분에게 많은 제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록의 구조와 디자인을 따른다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거룩한 직감이 아니라 정보를 분배하는 신의 초자연적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더블릿에서는 단어나 메시지가 지배적입니다.

이것들을 정의할 때, 우리는 적어도 지혜와 지식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은 최종적인 영감이 아니라 더

부드러운 의미로 영감을 받은 방식으로 회중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훈적인 담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서 지혜를 얻었을까요? 그들은 어디서 지식을 얻었을까요? 글썬요, 그들은 바울을 주의 깊게 읽음으로써 지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 그저 스스로를 교육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특별한 방식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치유는 더블릿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썬요, 흥미로운 글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이 단어들은 상당히 자명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들이 이 목록에 있고, 더블릿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믿음과 영의 표현으로서 치유의 상관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믿음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특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목록에 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힌지 때문에 특히 특별합니다.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그것은 직접적이고 계시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까? 후자가 사실이라면,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제가 처음 이것을 공부하고 야고보서 5장과 연관시켰을 때, 그것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의 해석에서 문제 중 하나는 장로들이 모여 누군가가 치유되기를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야고보서 5장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참여했던 모든 기독교 공동체는 야고보서 5장을 실천하려고 시도했지만 항상 그 실천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그리고 온갖 방식으로 그것을 조건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고보서 5장이 결코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절대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로들은 야고보서 5장에 묘사된 대로 교회의 초기 단계에서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을 추구하는 면에서 은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은 치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이미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서는, 만약 그들이 무엇의 기도를 한다면?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치유될 것이다. 글썬요,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관관계만으로 제 요점을 증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그것을 보세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적어도 이 목록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받아들이세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우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에서 배웠듯이,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것에 대해 궁금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저는 그것을 일부 전통에서 하는 것처럼 믿음 치유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치유의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저 좋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 이상의 통찰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기적적인 힘은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글썬요, 기적적인 힘.

권능의 작용, 위대한 행위, 기적적인 표적. 이것이 힌지입니다. 그것은 홀로 서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안된 구조가 맞다면, 이것은 목록의 모든 항목이 초자연적 표현의 범위에 속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카이아즘이 아니지만 균형 잡힌 구조입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의 더블릿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이는 내부 부분에 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런 다음 이상한 것은 이 기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록을 그런 식으로 보려고 그 리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언과 영의 분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 역사를 통틀어 선지자는 계시된 진리를 맡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위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약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웨인 그루뎀과 세 번째 물결의 일부 신학자들. 세 번째 물결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존더반이 펴낸 오순절주의 사전을 보세요.

피터 와그너는 또한 세 번째 물결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물결은 오순절파입니다. 두 번째 물결은 카리스마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결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워버 운동으로, 빈야드 교회가 창설한 운동으로, 성장하여 우리와 함께합니다. 세 번째 물결인 그루뎀은 신약 선지자의 역할을 고전적인 선지자 범주에서 재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루뎀의 생각은 신약 선지자를 구약 선지자와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루뎀이 제안한 견해는 주류 체계 신학이나 내가 알아차린 성경 신학에 대한 저술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학술 출판계에서 그의 편에 뛰어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논쟁은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그루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의 고유한 대변인이라는 고전적 정의를 인정했습니다. 구약에서 그들은 신의 입이었습니다. 모세는 신의 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그루뎀은 고전적 선지자들의 사역을 사도들과 관련시키고 신약 선지자들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인용문: 선지자와 예언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신적 권위로 말하지 않는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사용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것을 듣고 구약의 선지자라고 생각했다면, 잠깐만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신성한 권위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잘 들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진정한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대대적인 재정의를 주목하세요.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셨거나 그들의 생각에 가져다 주신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 명명법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루뎀은 신약에서 이 평범한 예언의 은사가 성경보다 권위가 낮고, 심지어 초기 교회의 인정된 성경 가르침보다 권위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선지자들은 감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토해내어 어디로 가는지 보는 사람들로 격하되었습니다. 냉소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루뎀은 궁극적으로 권위적이지 않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선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의는 일부 교회 전통이 성경과 유추하여 권위 있는 계시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인간일 뿐이에요. 그들은 정말 인간이에요.

이 구성은 확실히 특정 신학적 패러다임에 부합합니다. 그루뎀은 그의 체계적 신학에서 칼빈주의와 카리스마주의의 이상한 혼합체입니다. 예를 들어, 그의 글과 삶 속의 교제에서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현재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존 워버가 살아 있을 때 3파 사상의 주요 옹호자였습니다. 그 시기의 문헌은 Vineyard Church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그는 3파 사상의 옹호자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루뎀의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루뎀은 이 질문에 대한 논문을 쓴 다음 출판했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의 멘토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리처드 가핀이라는 교수였습니다. 그루뎀이 존경하는 가핀과 그가 무엇에 대해 쓰고 있는지 소통했을 때, 가핀은 걱정했고 실제로 그루뎀과 그의 논문 출판에 앞서 책을 써서 그루뎀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상쇄할 무언가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Perspectives on Pentecost*라고 불렀습니다.

참고문헌에 있는 것 같습니다. Richard Gaffin의 *Perspectives on Pentecost*는 이러한 자연적, 초자연적 측면에 대한 논쟁에 관심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사실, Gaffin은 종종 중단론적 관점의 주요 지지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중단론자들이 언급될 때 그들은 BB Warfield와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는 현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완전히 틀렸습니다.

세워놓고 무너뜨리는 쉬운 타겟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얻으려면 폭넓게 읽고 깊이 있게 읽어야 합니다. 12에서 14까지의 마지막 강의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약의 예언에 대해 아가보를 살펴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바울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계시적인 통찰력을 얻었으니, 바울은 사역에서 계속 유용할 수 있도록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의제를 정하고, 목표를 염두에 두었으며, 미래를 아는 것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를 안다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잊어버리세요. 아가버스를 읽어보세요. 미래를 안다는 것이 좋은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아닙니다.

당신은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이유로 좋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빼세요. 그리고 필립의 딸들도요.

14장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글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누군가가 악마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은 예언 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로, 신명기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은 예언자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은 예언적 진술을 검증하는 초자연적 재능을 가진 사람과 관련하여 가장 잘 이해됩니다. 예언적 진실. 진짜 예언적 진술과 가짜 예언적 진술을 분별하는 것.

이 문구는 악마화 문제에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이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다케라고 불리는 사도 이후의 문서를 비교해 보세요.

2세기에 교회가 어떻게 기능했는지에 대한 가장 초기의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는 이러한 영역 중 일부에서 교회가 주관주의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더블릿은 방언의 종류와 방언의 통역입니다.

처음 두 가지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서 나머지에 논리를 제공합니다. 189페이지.

이 마지막 쌍은 지혜와 지식의 영향의 시작 쌍으로, 이 목록을 기적의 작용으로 연결된 더블릿 시리즈로 봅니다. 힌지. 방언의 종류.

오직 여기와 1028에서만 우리는 그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황홀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 울타리 양쪽에는 훌륭한 학자들이 있고, 저는 단지 그 중 일부만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방언과 사도행전은 대부분 전도와 인증 목적을 위한 언어로 여겨진다. 하지만 고린도전서를 보면 언어를 아는 사람이 통역하거나 번역할 수 있는 실제 언어였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데이터가 있다. 아니면 황홀한 말의 또 다른 현상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4:22가 진짜 언어인데, 바울이 방언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청중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예시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그 예와 그 위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자명하지 않고 14:1-5 초반부는 방언처럼 보이지만 14:22는 사도 행전과 일치하는 제논로기아 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

자세한 해설에서 이 내용을 풀어낼 수 있지만, 두 단어 glossolalia는 glossa에서 유래한 것으로, 혀를 뜻하는 단어이고, laleo는 명사 형태의 말을 뜻하는 단어로, 말하자면 방언이나 방언의 종류를 뜻합니다. Xenologia 는 실제 언어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문헌을 읽을 때 이 두 용어를 보게 되고,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신약 예언 문제와 관련된 작은 참고 문헌입니다. 여기에는 Grudem 과 다른 사람들의 책이 포함됩니다. Gaff의 책은 여기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트나 노트 팩 15의 끝에 나올 참고 문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통일과 다양성, 분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에서 일치와 다양성, 그리고 이 은사의 기능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치의 기초. 이제 바울은 몸의 은유를 사용합니다.

12장 12절과 13절.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많은 지체가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은유가 설정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오히려 한 영으로 말하노라 .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영을 마시도록 주어졌느니라. 그러나 몸은 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좋아, 큰 비유.

유명한 은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바울은 많은 곳에서 이러한 은유를 사용했지만, 많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신체의 은유는 아마도 구약성서의 기업적 성격 개념에서 유래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구약성서는 어떤 것도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은 그리스인들이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거기에는 기업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Fitzmeyer는 아마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Fitzmeyer가 실제로 지지하는 Greek or Roman Balipolitic이라는 또 다른 옵션도 있습니다.

피츠마이어가 인용 한 이 자료에 대한 또 다른 저자입니다. 저는 거기에 주요 출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티슬턴은 발리폴리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살았던 세상을 은유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발리폴리틱은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바울 시대의 사회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 두 가지 모티브를 쉽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로마 발리폴리틱은 그들이 인구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통합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복지를 추구하는 일의 일부이며, Winter는 그에 대해 책을 썼고 다른 사람들은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에 대해 책을 썼습니다. 그들은 Balipolitic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명명법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고방식, 그 이미지, 같은 목적을 위해 모두가 연합한다는 그 패러다임은 그들의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aul이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좋은 예시로 그냥 즉흥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통일은 신체와 같습니다. 다양성은 신체의 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통일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시작합니다.

통일성과 다양성. 한 영으로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주장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회 전통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특정 오순절과 교단에서 그것을 영의 세례라고 부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물결은 이 명칭을 사용하여 다른 방식으로 영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몇 마디 하죠. 우선, 189쪽 하단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밖에서 영에 의한, 영 안에서, 영을 통한 세례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는 세례자이지 성령이 아닙니다.

둘째, 190페이지 성령은 세례주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몸의 시작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 전치사 in은 많은 번역에서 by로 번역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By는 대리 용어입니다.

전치사 in의 힘은 정말 명확하지 않으며, 그것이 도구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즉 소년인지, 아니면 지역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즉 구 또는 더 부드러운 의미로 in 또는 through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in 또는 through를 사용하는 것이 by라는 단어보다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그리스도는 세례자이시고, 영은 이 전체 상황을 강화하지만 기능하게 하고 그 관점에서 몸을 관리하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말할 만큼 언어적 진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에서 약간 창의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은유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신체에 영적 통일성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은유입니다.

그것은 민족적 장벽을 허물어버립니다. 교회는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신체 이미지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제거하고, 이 진술을 사용하여 특정 계층의 영적 인물에 대한 엘리트주의나 지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제거합니다.

도착했거나 그것을 얻은 사람들은 내 이모가 한 번 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받았어? 나는 그녀를 찾아가서 사역에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교파에 있었는데, 그 교파에서는 영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받기 전까지는 충분히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이 그녀가 나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신학을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녀의 신학적 기준을 충족시켰는가? 게다가 여기서 세례를 주는 것은 전형적인 물 조례에서 벗어난 드문 비유적 용법이다. 세례는 문맥상 달리 지시되지 않는 한 항상 젖어 있다.

로마서 6장은 젖어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기독교 전통의 영 세례에 의해 영망이 되었지만 거기에는 없습니다.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이 달리 나타내지 않는 한 세례에 대해 그렇게 가정해야 합니다. 이 문맥은 그렇게 나타냅니다. 게다가 로마의 고린도는 그 정치적 사상에서 도시나 신체의 복지를 추구하는 원칙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용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이 영의 세례라는 구절의 승리는 오순절로 가장 잘 받아들여지고 법의학적 진술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개관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과 불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위한 법정 법적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법정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구원 받을 때마다 새로운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아니요.

당신은 교회가 가진 법의학적 시작의 일부가 됩니다. 고려해야 할 약간의 기술적 사항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세례를 계속 반복하는 대신 결국 믿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순절에 몸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동일시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그것과 법적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법의학적 문제입니다.

영 세례에 대한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사실, 헌터, 해럴드 헌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 세례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과 반대를 모두 살펴보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제, 다양성의 근거. 우리는 단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에게 통일성을 줍니다. 부분은 우리에게 다양성을 줍니다. 하지만 14절에서 26절까지 조금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본문은 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문단이 여기서 어디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는 문단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제 발이,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한다면, 그는 발과 그 다른 특징들에 대한 이 장황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19절이나 18절에서 몸의 각 부분을 원하시는 대로 두셨습니다. 그들의 주권. 만약 그들이 모두 한 부분이라면, 그 몸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죠. 이 단원은 12, 14, 20으로 표시되는 것 같아요. 여러 부분, 한 몸.

그리고 14는 한 몸이 많은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버전의 문단이 15로 시작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경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것에 대한 강조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을 서클로 끌어들이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 기록한 이 많은 문단의 목록을 살펴보세요. 190페이지 하단에서.

모든 신자는 몸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런 예를 사용 하지 않나요? 손톱을 뜯어내는 것과 같은 간단한 것도 몇 주 동안 당신을 영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저기 있는 그 작은 것.

아니면 발가락이나 새끼발가락을 부러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 우리가 그저 거기에 있고 우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모든 부분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다른 신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의 모든 부분이 다른 부분의 좋은 기능에 의존하는 것처럼요. 아무도 자기만의 왕국이나 몸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보완된다. 나로 보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연합으로 서로를 완성한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우리가 서로에게 I가 아닌 E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충족시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습니다.

내가 약한 곳에서, 너는 강하고, 네가 약한 곳에서, 나는 강하고, 그게 바로 몸이 기능해야 할 방식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은 서로 연합합니다. 25절과 26절은 몸에 분열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체들이 서로 동등하게 돌보아야 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제 바울은 왜 몸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여전히 분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기 시작한 분열입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 은사의 행사에서 존재했습니다.

암시는 그가 혀를 다루는 방식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혀가 고양이의 야옹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은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혀가 고양이의 야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다면, 그들은 그저 특별한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부인하고, 아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양성의 근거입니다.

따라서 191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떠나서 신체의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는 어떤 부분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하,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 그렇지? 이걸 너무나 단순한 진실인데, 실천하기 정말 어려워. 동시에, 두 사람이 정확히 똑같은 사람은 없어. 아마 이것에 대한 가장 큰 비유는 가족일 거야.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말하지만, 저는 몇 년 동안 크리스천이 되었을까요? 저는 1963년에 해군에 있을 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미 해군입니다. 저는 1967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이면 목사 안수 사역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50년차, 그 문제에 관해서요. 그리고 여기서 토끼 굴에 빠져서는 안 되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몸의 어떤 부분도 꺼지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었고, 비유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강의에서 제가 정확히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기쁩니다. 저는 항상 제 실력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강의는 정말 저를 사로잡았으므로, 원하신다면 마음껏 웃으세요. 제가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냥 큰 소리로 웃으세요.

좋아요? 정확히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계속합시다. 191페이지, 1D.

다양성은 신의 계획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하세요. 통일, 다양성.

자연에서, 인간의 삶에서, 그리고 법의학적 경찰에서, 두 목소리가 정확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두 지문이 정확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인간! 다양성.

자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인간에 대해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곳곳에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다르지만, 모든 것이 기능을 합니다.

통일성과 다양성.

다양성은 신의 계획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똑같았다면, 세상은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그 논리는 다양성이 14~17년의 신의 창조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많은 내용을 읽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서사를 훑어봅니다. 일련의 진술이 질문인지 단언인지에 대한 다양한 번역의 문제는 주목할 만하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정말 우연적입니다.

그리스어 본문은 물음표를 유지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 여러 개를 읽을 수 있으며, 버전은 다양할 것입니다. 주장인가, 아니면 질문인가? 글썄요, 우리는 수사학에 있습니다.

질문은 좋은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최종 의미에 관한 한, 주장이든 질문이든 의미는 여전히 명확합니다. 관찰해야 할 약간의 기술적 사항일 뿐입니다. 18절에서 20절.

추론은 도출되어야 합니다. 다양성은 신의 결정입니다-18절.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그 몸의 각 부분을 원하시는 대로 두셨습니다. 18절의 초점은 하나님의 주권적 분배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적 분배는 그가 우리를 창조한 방식에서, 그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에서, 우리를 그 우산 아래로 데려와서 우리가 기능하게 하는 측면에서 주권적 분배입니다.

그 문장 내의 각 절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중요한 요점을 제기합니다. 그리스어 학생들은 12:11과 18이 의지에 대한 두 단어의 동의어적 성격을 반영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Boulami 와 Thelo .

어떤 사람들은 특정 텍스트에서 주요 신학적 요점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동의어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동의어의 상호 교환성, 즉 이 두 단어, 상호 교환성은 여기서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 언어적 형태소가 아니라 맥락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Boulamai를 사용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Boulamai를 사용하지 말고 맥락을 따르세요.

단어의 경우 거의 항상 그렇습니다. 단어는 사전 편찬에 따라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의미를 파악합니다. 많은 단어 연구가 매우, 매우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매우 조심하세요.

좋습니다.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과 평등은 21절에서 26절까지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도 이것은 너무나 서사적인 형식이라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눈이 손에게, 네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은유적 그림입니다. 24절, 우리의 보기 좋은 지체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은 몸을 합치셔서 없는 지체들에게 더 큰 존귀를 주심으로써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분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그 공동체의 밑바탕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숙고해야 할 질문: 사역 맥락에서 사람들의 연합과 다양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양성을 분열과 문제의 원인이 아닌 강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했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사람들을 다루는 목사이거나 사역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자녀를 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지 않나요,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밤과 낮처럼 다릅니다. 다양성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역에서 큰 도전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격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도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다양성이 신의 뜻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에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있고, 그들은 밤낮으로 다르고,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한 사람에게 끌린다면, 당신은 여기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각자 다양성과 함께 살 수 있는 측면에서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호환성을 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회중도 호환성이 없습니다. 어떤 가족도 절대적으로 호환성이 없습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양성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의 뜻입니다 .

누군가는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고양이를 몰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이 말을 들어보세요.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냄비에 따뜻한 젤리를 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좋은 것이 있습니다. 사역에서 이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역을 위한 리더십은 기업을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대 세계에서 큰 방식으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한 저자가 말했듯이, 리더십은 공유된 실천의 방식입니다. 실천은 실천의 또 다른 용어입니다.

즉, 리더는 추종자들이 비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저 비전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매우 중요한 책이 있는데,

토마스 그룹이 쓴 Sharing Faith,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and Pastoral Ministry, The Way of Shared Practice입니다. 이 책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기독교 서점의 잡동사니도 아닙니다. 다소 도전적인 책입니다.

교육적인 책입니다. 목차를 보면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룹을 이끌고 리더십 아이디어를 취하고 그룹을 특정 세그먼트, 약 7개로 나누어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었을 때 그들은 당신이 말한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말한 것을 이해하고, 이제 당신이 말한 것을 소유하고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룹은 개인이 아니라 그룹이 아이디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야 합니다.

다시 그 비유를 들어보죠.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을 목마르게 만들어서 스스로 물을 마시고 싶어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단합과 다양성의 풀에서 마시는 음료입니다. 권력은 소위 리더가 아닌 집단 소유에 있습니다. 몸, 그룹의 목차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그 책이 당신에게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27절에서 31절은 몸이 되는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음 몇 분 안에 12장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12:27에서 은유에 대한 결론적인 주장입니다.

그것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각자는 그 몸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셨고, 그런 다음 그는 또 다른 목록을 주십니다.

좋아요. 그럼 본문은 집중하고, 그런 다음 그는 처음에 제시한 목록의 변형을 이어가서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동일한 종류의 구조 없이 제시합니다. 마지막 목록은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 선물을 먼저 순위를 매기고, 일부 사람들이 매우 소중히 여기는 과시적 선물을 목록의 맨 마지막인 28~31위에 둡니다.

이 목록은 해석적, 사전적 지뢰밭이라고 불렸습니다.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순위 명명법이 실제 순위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목록을 만드는 문학적 방법을 위한 것인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글썄요, 살펴보세요.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교사.

그럼 나머지 목록을 받게 됩니다. 꽤 중요한 것들. 기적, 그렇죠.

치유의 은사. 그는 왜 열거했을까?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유일한 목록이거든. 이게 뭐야? 그리고 주장에 대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구성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하면서 많은 잉크가 쓰여졌어.

사도, 선지자, 교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방언의 은사보다 더 선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 목록에는 어떤 사람들이 목록에 있는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밋밋하다고 분류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계시적인 자료에 이르기까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다음 도움이 되는 범주에 청소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체의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는 요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소유하세요. 열정적으로 소유하세요.

정직하게 소유하세요. 그리고 그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하세요. 사실, 이 아이템은 레이더 화면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것이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특별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온갖 종류의 제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사라는 용어가 종종 신체의 기능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소규모 교회 목사는 자원 봉사 청소부가 신의 은사라는 것을 압니다.

이 목록은 에베소서 4장과 비슷하게 재능 있는 사람들에 초점을 두고 시작합니다. NIV는 이 강조점을 전반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석적으로 번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버전을 비교해보세요.

주장에 따른 순위는 보통 특이한 목록입니다. 순위는 중요성의 순서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권위의 순서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교회를 설립하고 건설하는 데 있어서 신약 성경의 역사적 선례의 순서를 의미합니까? 이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여전히 사도, 선지자, 교사를 목록에 있는 사람들로써 고유한 사람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은 하나 이상입니다. 이 사람이 열두 사도와 같은 수준의 사도입니까? 바울은 열두 사도 중 한 명이 아니었지만 열두 사도와 같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나 열두 사도의 수준에는 없었지만 사도라고 불렸던 다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글쎄요, 그건 큰 토론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일부가 있습니다. Fee는 이것이 사도 집단, 즉 사도, 선지자, 교사에 대한 종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궁금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단지 현실일 뿐입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리더입니다. 문제는 1세기에 그들이 누구였는지 알아내는 것은 한 가지 일이지만,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은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도 그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어느 정도 서열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든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지휘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종자들이 이해하도록 만들고, 그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효과적인 리더십과 기업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물론 아무도 그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구나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서열이 있습니다.

이 목록의 처음 세 명은 직책을 맡은 사람인 듯하고, 나머지는 사역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록은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의문들을 추적할 수는 있지만, 목록의 전반적인 개요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구되고 연구되고 연구될 수 있습니다. 사도에 대한 주요 논문을 쓴 영국의 Lightfoot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티슬턴은 자신의 저서에서 여러 섹션으로 이를 다룹니다. 모든 주요 주석서에는 사도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2사도와 바울처럼 특별한 것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직책이 아닌 선물로.

사도는 열두 사도,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 열두 돌의 이미지, 열두 문 등을 포괄하는 용어였습니다. 로마서 16:7에서 바울, 아드로니고, 유니오는 사도로 언급 됩니다 . 문제는 이 용어가 열두 사도와 바울만큼 특별한 것으로 항상 여겨져야 하는지, 아니면 은사 목록에서 사역 용어로 사용되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용어를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Fitzmeyer는 이 텍스트에서 사도적 역할은 diakoneia , 즉 사역이나 봉사의 한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 그는 로마 가톨릭 신자이므로, 거기로 가세요. 로마 가톨릭이나 일부 카리스마파와 같이 사도적 계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세요, 오늘날 바울과 같은 수준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은 바울 수준의 사도가 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 본문들을 확인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9:1과 존스라는 사람의 참고 문헌. 마지막 핸드아웃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던은 사도들이 바울의 열두 사도보다 더 넓은 범위를 대표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등의 구절을 근거로 개인적으로 위임받은 창립 멤버의 특별한 그룹을 구성한다고 믿습니다.

Dunn을 인용한 Thistleton. Dunn의 책은 여기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dronicus와 Junius의 정확한 지위는 논쟁 중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주석은 고린도전서 12:28을 열두 사도와 바울에게만 국한시키고, 그들의 시대 이후에는 후계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열두 사도와 바울보다 더 광범위한 사도 문제는 연구되어야 하지만, 이 본문 밖에서 연구하고 다른 본문에서 살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열두 사도와 바울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진술은 많지 않지만, 몇 가지는 있고, 우리가 직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절로서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정확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도들이 없을 때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목적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마틴은 그들이 회중을 위한 신성한 뜻의 계시를 제공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매우 비슷하게 사도들과 협력하지만 어느 쪽으로든 서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닌 특별한 직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목사라는 설명 없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은 아마도 기독교 신앙의 의미와 도덕적 함의를 전달하고 설명하는 데 재능이 있는 계시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교사는 목사라는 설명자 없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사 도우미는 다음 지점에서 나옵니다 .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옮겨갔죠. 그리고 이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을 다루지는 않지만, 이건 도우미라고 불립니다.

NRSV는 도우미의 형태가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이는 신약에서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는 도우미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활동 용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무엇이든 정의하지 않습니다.

Thayer는 그것을 집사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합니다. 이 용어는 칠십인역에서도 적당히 쓰입니다. 로마서 12:8은 영어로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리스어로는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평행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정한 맥락에서 돈이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어로 연결을 만들 수는 있지만, 합법적인 연결을 만들려면 근본적인 그리스어 단어 , 즉 행정을 위한 여성 명사와 NRSV 형태의 리더십과 NIV 형태의 안내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티슬튼은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모두가 이것들로부터 의미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맥락이 없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사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만 사용됩니다.

성경 외의 용법은 통치의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대응하는 남성 명사는 배를 조종하는 사람에게 사용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상당히 분명했고, 아마도 단 하나의 의미에서 단일적이지는 않았지만, 도움과 행정의 범주에서 다양한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범주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단합과 그룹 조직의 원활한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글쎄요, 마지막 구절인 29절과 31절은 제가 말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우리 시대에 다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29, 30번 질문의 언어 구조는 모두 사도이고, 모두 선지자이고, 모두 교사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질문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는 답을 기대합니다. 그리스어는 부정과 부정 방식으로 질문을 설정하여 답을 아니요, 아니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이 아닙니다. 사실 문법입니다. 수사적 질문을 사용하지만, 저자는 그 과정에서 답을 확정합니다.

위대한 은사를 지녔다고 해서 반드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흥미로운 전환 진술을 사용하지만 더 큰 은사를 추구하는데, 결국 그는 그것이 교육의 은사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당신에게 더 뛰어난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뛰어난 방법입니다. 이 진술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주제를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전환합니다. 그가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더 뛰어난지는 13장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 가지는 남아 있지만, 이 중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13장은 12장에서 14장으로의 이동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적인 헌신이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장이 아닙니다.

12장과 14장을 연결합니다. 14장에서 은사의 기능으로 넘어가면서 분열의 문제와 통합되지 못한 공동체의 다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연결합니다. 12장 31절은 13장으로의 전환을 제공합니다.

일부 번역은 12로 마감하고, 다른 번역은 31a로 마감하고 31b로 시작합니다. 사실, 수업에서 원래 사본 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 중 대부분 초기 사본에는 장이나 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만들 것입니다.

매우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기적 진술은 항상 양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당신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당신이 선택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과도기적 구절이라는 사실과 12장과 13장 사이에 긴밀한 연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글썄요,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는 13장과 14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한 강의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여기 텍스트만이 아니라 은사에 대한 논쟁의 관점에서 은사에 대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텍스트를 살펴보고, 신학적 영역과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어떻게 논쟁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조사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 마치고 15장과 16장에 들어섰습니다. 훌륭한 자료지만 제가 다른 내용에 비하면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거의 끝이 다 되어갑니다. 강의를 다 들으셨다면, 제 애도를 표하고, 끝까지 버텨 주셔서 축하드립니다.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노트가 여러분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강의에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29번째 강의, 고린도전서 12-14장, 영적 은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